

# FATAL SENTENCE For KICE

PSAT\_심프.ver

- 문제편 -

## Part. 1 Sentence Step

### 0. 기본적인 독해 Tip

#### 1. 정보 추출

- 화제 잡기
- 키워드 : 정의, 단어뜻기, 이항개념어
- 보조사, 접속 부사

#### 2. 정보 간 관계

- 대립코드 · 비교지점
- 예시
- 재진술
- 화제에 붙여 읽기
- 과정 서술 이해하기

#### 3. 잉여 정보는 없다

## Part. 2 Text Step

- PSAT 지문 + 유사 평가원 기출 읽기
- PSAT 변형 문제 풀기



## Part. 1 Sentence Step

### 1. 정보 추출 - 화제 잡기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파트는 '독서'입니다. 즉 평가원이 출제하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지문도 결국 하나의 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를 떠올려봅시다. 그 글이 소설책일 수도 있고,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칼럼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커뮤니티의 게시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구조도를 그리지도 않죠. 하지만 단 하나만은 생각합니다. '글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핵심 하나는 꼭 생각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 글의 '화제'를 잡습니다.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화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제는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화제와 특정 문단의 화제로 나뉩니다. 즉, 우리는 '지문 화제'와 '문단 화제'를 나눠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읽는 게 소위 말하는 '거시 독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읽는 글은 하나의 화제를 다루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화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완성된 글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죠. 그럼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글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각 문단이 하나의 화제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파악하는 게 '문단 화제'를 잡는 것입니다. 그럼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지문 화제'와 각 문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단 화제'를 잡으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해봅시다.

### 2017 PSAT 언어논리 4번 변형

하늘이 내린 생물을 해치고 없애는 것은 유교의 성인(聖人)이 하지 않는 바이다. <하물며 하늘의 도가 어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게 하였겠는가? 『서경』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진실로 총명한 자는 천자가 되고,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였다.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라면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다. 천지와 사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으며, 자식 가운데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이 어리석고 불초하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며 오히려 걱정하거늘, 하물며 해치겠는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는 것이다.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사람과 만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인간과 동물은 이미 천지의 기운을 함께 얻었으며, 또한 천지의 이치도 함께 얻었고 천지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미 하나의 같은 기운과 이치를 함께 부여받았는데, 어찌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동물은 나와 한 몸

이다”라고 하였고, 유교에서는 “천지만물을 자기와 하나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仁)'이라고 부른다.>

#### 1. 이 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이 글에서 다루는 ‘인’의 핵심은 무엇인가? [02:02]부터 읽고 인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파악해보자.

[02:02~02:13]

〈하물며 하늘의 도가 어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게 하였겠는가? 『서경』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진실로 총명한 자는 천자가 되고,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였다.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라면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다. 천지와 사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으며, 자식 가운데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이 어리석고 불초하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며 오히려 걱정하거늘, 하물며 해치겠는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는 것이다.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사람과 만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인간과 동물은 이미 천지의 기운을 함께 얻었으며, 또한 천지의 이치도 함께 얻었고 천지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미 하나의 같은 기운과 이치를 함께 부여 받았는데, 어찌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동물은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하였고, 유교에서는 “천지동물을 자기와 하나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仁)’이라고 부른다.〉

→

2017 PSAT 언어이해 30번

[01]

어느 때부터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주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특히 태아의 인권 취득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수정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정체, 접합체, 배아, 태아의 단계를 거쳐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1. [01:01]을 읽고 지문의 화제를 잡아보자.

[01:01]

어느 때부터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주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

2. [01:02]에서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01:02]

특히 태아의 인권 취득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

3. [01:03]을 '자연과학'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자.

[01:03]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수정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정체, 접합체, 배아, 태아의 단계를 거쳐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2017.09 [31~34] 열기관의 열효율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Q1.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2021.11 북학론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Q1.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Q2. 이 문단의 문단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문 화제와 연결하여 박제가의 입장을 이해해보자.

→

## Part. 1 Sentence Step

### 1. 정보 추출 - 키워드 이해하기

우리가 읽어야 할 지문은 항상 특정 개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금 화제를 왜 잡아야하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글의 화제를 잡으라고 하면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어도 지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화제를 잡지 못하면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만이라도 제대로 잡으라는 뜻이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잡기는 하겠는데 그냥 키워드에만 주목하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내용인지 등을 함께 체크하고 이해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꼭 키워드의 '정의'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화제와 직결되는 키워드 이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다 정리해야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의를 포함한 키워드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키워드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바로 '단어뜯기'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키워드는 항상 그 자체로부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의 정의나 정보를 납득하는 데에 있어서 키워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적표'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성적표가 무엇인가요? 성적/표는 '성적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이미 키워드 자체에서부터 '성적을 알려주는 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키워드 자체에 쌓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해당 키워드의 정의를 당연하게 납득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익혀야 할 태도가 바로 '단어 뜯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 키워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뭘까요? 그 키워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뜯기와 같은 방법으로 키워드 자체에 주목하면서 납득하는 태도의 연장선이에요.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의 문장을 한 번 읽어보세요.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입체 지각을 위한 단서로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역시나 단어뜯기로 먼저 이해해봅시다. 양/안//단서는 양쪽 눈(양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서이고, 단/안//단서는 한쪽 눈(단안)으로 얻을 수 있는 단서입니다. 간단하게 납득했죠? 그런데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는 '눈의 개수'라는 기준에 따라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즉, 두 키워드는 대립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로부터 차이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키워드들을 '이항대립적 개념어'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히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의 정의를 납득하는 것을 넘어 두 단서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대립코드 · 비교지점' 파트에서도 이용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 PSAT 언어이해 (나) 24번 변형

① 미국의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제는 크게 시설계획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모범규준과 특정 시설의 화재안전평가 및 대안 설계안을 결정하는 화재안전평가제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는 화재위험도평가제로 구분된다. ② 건축모범규준과 화재안전평가제는 건축물의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지침으로 적용되며, 화재위험도평가제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 화재위험도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1. ①번 문장에서 제시된 건축모범규준, 화재안전평가제, 화재위험도평가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②번 문장을 재진술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번 문장의 내용을 ‘당연하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9.11 [16~20] 법률 효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Q. ‘채무’와 ‘채권’의 정의를 정의를 납득하고 각 키워드의 정보를 정리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8.06 [22~25] 통화 정책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Q.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정의를 납득하고 각 키워드의 정보를 정리해보자.

## Part. 1 Sentence Step

### 2. 정보 간 관계 - 대립코드 · 비교지점

앞에서 우리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납득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키워드들 간의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의 지문에서 여러 가지의 키워드나 개념들이 등장한다면 그 개념들 사이에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잡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보들에 무조건적으로 주목해줘야 해요. 특히 차이점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이렇게 키워드나 개념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차이점을 ‘대립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들 사이의 대립코드만 짚고 넘어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공통점 · 차이점이 바로 한 문장 혹은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등장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그 정보들이 연달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문에서 다루는 정보들을 기억하고, 공통점 · 차이점이 등장할 때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확히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 A는 이랬는데 B는 또 다르네?’ 혹은 ‘A도 그랬는데 B도 이렇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그 정보들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키워드나 개념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같고 다른지 그 ‘비교지점’을 명확히 잡아줘야 합니다. 대립코드와 연결해보자면, 각 정보들 사이의 대립코드가 드러날 때, 그 대립코드를 명확히 정리해줄 수 있는 ‘비교지점’을 잡는 것이죠.

역시나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이항대립적 키워드를 잡는 건 앞에서 익히셨을 테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립코드와 비교지점을 잡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일단 준칙주의 먼저 볼게요. 준칙주의는 통화 정책을 운용할 때, 정해진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재량주의’는 어떤가요? 준칙을 무조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겨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준칙 준수’라는 비교지점에서 두 입장의 대립코드가 드러나죠? ‘무조건 지켜야 한다 VS 때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와 같아요. 이 비교지점을 잡고 둘의 대립코드를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글을 날려 읽는 학생들 중에서 가끔 차이점을 잡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대립코드를 잡을 때, 재량주의의 입장을 ‘준칙 경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량주의도 준칙 자체를 지키자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준칙

에 대한 복종 그 자체는 공통적이지만, ‘무조건’이나 ‘필요에 따라’이냐라는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 ‘준칙 준수’라는 비교지점을 바탕으로 대립코드를 잡을 때도 ‘때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고 했지, ‘준칙 = 가치 X’ 이렇게 극단적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을 잡을 때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키워드나 개념들이 나왔을 때 각 정보들 간 공통점·차이점이 나타난다면 꼭 비교지점을 잡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대립코드까지 체크해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016 PSAT 언어논리 11번 - 대립코드 · 비교지점**

규범 체계, 과학 지식, 기술적 성과와 같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원시문화를 살펴보면, 현대의 문화와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같은 기준선상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원시부족은 고도로 발달된 규범체계를 갖고 있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조직과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조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원시인들 또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원시인들의 법은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교한 현대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1. 원시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의 대립코드를 찾고 비교지점 통해 이해해보자.

→

2. 3번째 줄에서 원시부족이 ‘고도로 발달된 규범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단순한 체계’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키워딩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무엇인가?

→

2017 PSAT 언어논리 24번

동아시아 삼국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장기 거주함에 따라 생활의 편의와 교통통신을 위한 근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문명의 이기로 불린 전신, 우편, 신문, 전차, 기차 등이 그것이다. 민간인을 독자로 하는 신문은 개항 이후 새롭게 나타난 신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문(新聞) 혹은 신보(新報)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다. 물론 그 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1. '신문'과 '관보'의 가장 두드러지는 비교지점은 무엇인가?

→

1-1. [01:05]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01:05]

물론 그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

2. 관보의 정의를 바탕으로 관보와 신보(신문) 사이의 심층적인 대립코드와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떠올려 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말하는 '신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

2017 PSAT 언어논리 25번 변형

조선 후기에 들어와 아들이 없어 대를 이을 수 없는 양반들은 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해 양자를 적극적으로 입양했다. 양자는 생부와 양부가 모두 생존해 있을 때 결정되기도 하지만, 양부 혹은 양부모가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을 때는 사후에 정해지기도 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목적은 아들이 없는 집의 가계 계승이었다.

양반가에서 입양이 일단 이루어지면 양부모와 양자의 부자관계는 지속되었으며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이 일시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하층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호적을 보면 평민은 물론 노비층에도 양자가 존재했으며 때로는 양부와 양자의 성씨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양자의 성씨가 다른 경우는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성씨가 다른 양자가 보인다면 이는 양반가가 아닌 하층민에서 노동력 확보나 노후 봉양 등을 목적으로 한 입양이었다

1. 양반의 입양과 하층민의 입양 사이의 비교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납득하고 이해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0.09 [38~41] 위치 측정 기술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Q1.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공통점·차이점(대립코드)를 찾고,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찾아보자.

→

Q2. GPS, IMU, 비콘의 공통점·차이점(대립코드)를 찾고,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찾아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0.11 [26~29] 이식편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Q. 동종 이식과 이종 이식의 공통점·차이점(대립코드)을 찾고,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찾아보자.

→



### 3. 정보 간 관계 - 예시

평가원이 독서 파트에서 다루는 소재들은 꽤나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대립코드나 비교지점을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잘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글을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이해해야 하죠. 이때 평가원은,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가지 장치를 마련해두는데 그중 하나가 '예시'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지문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것 있잖아~'하며 대표적인 사례나 비슷한 사례에 빗대어 가며 설명하기도 하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시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결국 예시를 읽는 건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꼭 어떤 것에 대한 예시인지를 파악하고, 이 예시와 지문의 개념 및 원리를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앞에서 풀어본 2021학년도 수능의 예약 지문입니다. 여기서 예약의 유형을 나눌 때 예시가 활용되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정의만 보서는 정확히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둘 사이의 대립코드와 비교지점을 잡아야 하는 데도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 업체의 사례를 보니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본계약 체결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반면, 식당 예약의 사례를 보니 예약 완결권의 사례에서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가 없네요. '상대방의 승낙 여부'라는 비교지점을 기준으로 둘 사이의 대립코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본계약 체결을 요청(요구)할 권리'인 채권과 '본계약 체결을 바로 맺어버리는 권리', 즉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것을 위해 체결하는 예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인 예약 완결권으로 나뉘는 것이죠.

우리는 위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각 예약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예시를 이해한 후 다시 예약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였죠. 이런식으로 어떤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예시가 등장할 경우, 꼭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로 예시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첨언하자면, 지문에 등장한 예시와 관련된 내용이 <보기> 활용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지문에서 우리에게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등장한 예시와 유사한 사례가 <보기>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례가 <보기> 활용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예시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태도 자체는 '예시를 통한 이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해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문에서 말하는 예시와 <보기> 문제에 제시된 예시가 다른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 <보 기> —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어렵기로 악명 높은 2016.11B 중력&부력&항력 지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보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그걸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종단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의 예시와 <보기>에 제시된 사례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종단 속도의 핵심은 결국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낙하'할 때를 가정하고 <보기>에서는 '상승'할 때를 가정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항력 + 부력 = 중력'이라는 공식만을 그대로 <보기>에 적용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종단 속도의 핵심에 따르면, 물체가 상승하기 때문에(이동 방향 ↑)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식 자체는 '중력(↓)+ 항력(↓) = 부력(↑)'이 되어야 합니다.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라는 종단 속도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시만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를 그대로 날리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결국 문제가 묻고자 하는 태도는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지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그게 전부예요. 단순히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

2016 PSAT 언어논리 14번 - 예시

정신은 ‘분석정신’과 ‘반응정신’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반응정신은 생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반응정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면상태에서처럼 분석정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감각에 입력된 내용을 뇌의 특정 부위에 기록하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청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입력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아주 성능 좋은 기록기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엔그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해보자. 그때 근처에 있던 모터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반응정신이 작동하여 이 소음이 기록된 하나의 엔그램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비슷한 환경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쳤을 때 예전에 기록된 엔그램으로 인해 주위에 모터가 없는데도 시끄러운 모터 소리 비슷한 소음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엔그램이 기록될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와 비슷한 일을 겪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엔그램의 작용이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한편 반응정신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서부터 작동하며, 따라서 인간은 이미 상당히 축적된 엔그램을 지니고 태어난다.

1. ‘엔그램’에 대한 설명을 예시와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8.11 [27~32] 정책 수단의 특성&오버슈팅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Q. 이 글에서 예시가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는지 생각해보고, 예시를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이해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응하기

- 2021.06 [29~33] ICT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Q1. 이 글에서 예시가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는가?

→

Q2. 예시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해보자.

→

### 3. 정보 간 관계 - 재진술

이번에는 재진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문에서 하는 역할은 예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지문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진술 문장이예요. 내용을 쉽게 써주는 것 외에도,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요약해주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재진술 문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문장들이니까요. 예시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재진술하는지 생각하고, 한 번에 딱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재진술 문장을 통해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빛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빛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역시나 실제 재진술 문장으로 같이 보는게 이해가 빠르겠죠? 색칠된 문장은, 종단속도의 개념을 재진술해주는 문장입니다. 이 지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력·부력·항력이라는 힘들은 각각 작용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빛방울이 낙하하는 상황, 즉 유체 속에서 물체가 아래로 '운동'하는 상황에 대해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속도가 종단 속도인데, '낙하'하는 상황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냥 '중력 + 부력 = 항력'이 종단 속도다! 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황에도 종단 속도가 일어나고, 종단 속도는 결국 '힘의 평형'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풀어써주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 문장이 없어도 중력과 부력, 그리고 항력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종단 속도가 무엇인지 억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평가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색칠된 부분과 같은 재진술 문장을 심어둡니다. 이런 문장들을 캐치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 2017 PSAT 언어논리 3번

1965년 노벨상 수상자 케리 베커는 '시간의 비용'이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 활동은 영화 관람에 비해 단위 시간당 시간의 비용이 작다. 그 이유는 수면과 식사가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력이 떨어진다 면, 생산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면과 식사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의 비용이 영화관람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다.

1. '시간의 비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해당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8.09 [16~19] 하이퍼리얼리즘

관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Q. 제시된 글에서 재진술 문장을 찾고, 무엇에 대한 재진술 문장인지 고민한 후, 어떻게 재진술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0.06 [19~22]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Q. 제시된 글에서 재진술 문장을 찾고, 무엇에 대한 재진술 문장인지 고민한 후, 어떻게 재진술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7.11 [16~20] 포퍼&콰인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Q. 제시된 글에서 재진술 문장을 찾고, 무엇에 대한 재진술 문장인지 고민한 후, 어떻게 재진술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 3. 정보 간 관계 - 과정 서술 이해하기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나 현상 등의 과정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 서술 이해하기’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독해 태도입니다. 기술 지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설명하자면, 기술 지문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기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전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결과에 이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있죠. 이게 한 문단 내에서 모든 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단을 걸쳐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그런 지문들을 읽어나갈 때, 항상 특정 원리나 현상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 지문을 중심으로 다루자면, 기술 지문의 경우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성요소가 등장한다면, 그 구성요소에 맞게 기술이 작동하고, 우리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원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동 원리가 순서대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요소 역시 순서대로 제시됩니다.

정리하자면 과정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성요소든 원리든 뭐든지요. 역시나 예시로 같이 보면서 이해해봅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과정 서술의 대표적인 예시인 CD 드라이브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CD 드라이브가 정보를 판독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위에 발췌된 파트는 CD 드라이브의 작동 원리를 구성요소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CD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입니다. 그리고 후술되는 문장들을 보니, 구성요소를 제시한 순서대로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CD 드라이브의 원리를 설명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스크 모터가 CD를 돌리고, 광 픽업 장치(광 검출기 포함)가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하고 정보를 판독하는데 정보를 판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광학계 구동 모터입니다. CD 드라이브가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는지 그 과정을, CD 드라이브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포커싱 렌즈’리는 구성요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대요. 그런데 광선을 조사하고 검출하는 건 광 픽업 장치의 역할이었죠? 즉 광 픽업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구성요소인 겁니다. 그럼 역시나 CD 드라이브의 작동 과정을 이해하면서, 포커싱 렌즈도 그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8. 09 [38~42]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Q. 집합 의례에 대한 정보를 집합 의례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해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 06 [25~28] 영상 안정화 기술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Q1. OIS 기술의 작동 원리를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자.

→

Q1-1. '보이스코일 모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 11 [34~37] 3D 합성 영상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숫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숫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숫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숫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Q1.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연결해서 이해해보지.

→

## Part. 2 Text Step.

Part. 2 Text Step.

- PSAT 지문 + 유사 평가원 기출 읽기

2020 PSAT 언어이해 (나) 21번 변형

지명과 통행 문화가 연결되는 경우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명은 고장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땅이나 지형 등의 이름을 본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명의 유래를 살피기 위해 문화·역사적 연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조선 시대에는 지체 높은 관리의 행차 때 하인들이 그 앞에 서서 꾸짖는 소리를 크게 내어 행차에 방해되는 사람을 물리쳤다. 이런 행위를 '가도'라 한다. 국왕의 행차 때 하는 가도는 특별히 '봉도'라고 불렀다. 가도는 잡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벽제'라고도 했으며, 이때 하는 행위를 '벽제를 잡는다.'라고 했다. 가도를 할 때는 대체로 '물렀거라', '에라, 게 들어 섰거라'고 외쳤고, 왕이 행차할 때는 '시위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정해진 법도였다. 『경도잡지』라는 문헌을 보면, 조선의 고위 관료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그 행차 속도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행차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 벼슬아치의 위엄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군사 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의 우두머리 관직인 병조판서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삼정승보다 낮은 관직의 가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래고 강렬했다고 한다. 병조판서의 행차답게 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애초에 가도는 벼슬아치가 행차하는 길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미리 치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행차앞에 방해되는 자가 없어도 위엄을 과시하는 관례로 굳어졌다. 가도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멀리서도 냉큼 꿰어앉아야 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면 엄벌을 면치 못했다. 벼슬아치를 경호하는 관원들은 행차가 지나갈때까지 이런 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둬 두었다가 행차가 지나간 뒤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니 서민들로서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다른 길로 통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서울 종로의 피맛골은 바로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오가던 뒷골목이었다. 피맛골은 서울의 술한 서민들이 종로 근방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오가던 길이었고, 그 좌우에는 허름한 술집과 밥집도 많았다. 피마란 원래 벼슬아치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보

다 높은 관리를 만날 때, 말에서 내려 길옆으로 피해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벼슬아치들의 행차와 그 가도를 피하기 위해 뒷골목으로 다니는 행위를 '피마'라고 불렀다. 피맛골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 1.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

[01]

지명과 통행 문화가 연결되는 경우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명은 고장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땅이나 지형 등의 이름을 본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명의 유래를 살피기 위해 문화·역사적 연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1.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01:01]에 주목하여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01:01]

지명과 통행 문화가 연결되는 경우는 없을까?

→

[02]

조선 시대에는 지체 높은 관리의 행차 때 하인들이 그 앞에 서서 꾸짖는 소리를 크게 내어 행차에 방해되는 사람을 물리쳤다. 이런 행위를 '가도'라 한다. 국왕의 행차때 하는 가도는 특별히 '봉도'라고 불렀다. 가도는 잡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벽제'라고도 했으며, 이때 하는 행위를 '벽제를 잡는다.'라고 했다. 가도를 할 때는 대체로 '물렀거라', '에라, 게 들어 섰거라'고 외쳤고, 왕이 행차할 때는 '시위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정해진 법도였다. 『경도잡지』라는 문헌을 보면, 조선의 고위 관료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그 행차 속도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행차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 벼슬아치의 위엄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군사 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의 우두머리 관직인 병조판서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삼정승보다 낮은 관직의 가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래고 강렬했다고 한다. 병조판서의 행차답게 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3. [02]에서 등장하는 '가도'에 대한 내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4. 병조판서의 가도 소리가 큰 이유는 높은 관직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O, X)

→

5. 벽제 소리 크기는 벼슬의 높낮이에 비례한다. (O, X)

→

[03]

애초에 가도는 벼슬아치가 행차하는 길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미리 치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행차앞에 방해되는 자가 없어도 위엄을 과시하는 관례로 굳어졌다. 가도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멀리서도 냉큼 꿰어앉아야 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면 엄벌을 면치 못했다. 벼슬아치를 경호하는 관원들은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런 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둬 두었다가 행차가 지나간 뒤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니 서민들로서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다른 길로 통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6. [02:05]를 중심으로 이 문단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고, 다음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화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02:05]

그러니 서민들로서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다른 길로 통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

[04]

서울 종로의 피맛골은 바로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오가던 뒷골목이었다. 피맛골은 서울의 술한 서민들이 종로 근방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오가던 길이었고, 그 좌우에는 허름한 술집과 밥집도 많았다. 피마란 원래 벼슬아치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높은 관리를 만날 때, 말에서 내려 길옆으로 피해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벼슬아치들의 행차와 그 가도를 피하기 위해 뒷골목으로 다니는 행위를 '피마'라고 불렀다. 피맛골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 **FATAL SENTENCE\_PSAT편**

7. [04:01]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화제를 중심으로 떠올려보자)

[04:01]

서울 종로의 피맛골은 바로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오가던 뒷골목이었다.

→

8. 화제와 '피마'의 내용을 연결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7.11 [37~42] 보험과 고지의무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1. [03]을 읽고, 이 문단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본 후 뒷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음 지문의 내용을 읽어본 후 본인이 생각한 내용과 등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2020 PSAT 언어이해 (나) 22번 변형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가족을 중시하였다. 가족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이라는 인식하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야 했다. 중국 법전인 『대명률』은 부인이 남편을 때렸거나 간통을 했을 경우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허용했다. 그런데 조선은 『대명률』을 준용하면서도 '조선에는 이혼이란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대명률』에는 이른바 출처(出妻)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을 내쫓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조선에서는 출처가 거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였다. 조선은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양반 남자 집안 또한 이혼이나 출처에 부정적이었다. 부인을 쫓아내면 그것은 곧 적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적처는 양반가에서 적자의 배우자로 집안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가정의 관리자다. 이에 조선의 양반가에서 적처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게다가 적처를 쫓아내고 새 부인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 적처를 내보내면 적처 집안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조선 전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드는 형태로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처의 집안 즉 여자 집안의 영향력이 컸고,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은 비교적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물론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혼인의 형태가 변화하여 남자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자 집안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지원은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자 집안과의 공조를 끊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 고려해서 이루어진 혼인이었으므로, 재혼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에서 남자 집안은 새로운 관계를 찾기보다는 처음 맺은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칠거지악이 여자들을 옥죄는 조선의 악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때문에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이혼이 거의 불가능하고도 불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의 부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가족을 중시하였다. 가족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이라는 인식하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야 했다. 중국 법전인 『대명률』은 부인이 남편을 때렸거나 간통을 했을 경우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허용했다. 그런데 조선은 『대명률』을 준용하면서도 '조선에는 이혼이란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대명률』에는 이른바 출처(出妻)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을 내쫓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조선에서는 출처가 거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였다. 조선은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2. [01:06]을 중심으로 이 지문의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01:06]

조선은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

[02]

양반 남자 집안 또한 이혼이나 출처에 부정적이었다. 부인을 쫓아내면 그것은 곧 적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적처는 양반가에서 적자의 배우자로 집안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가정의 관리자다. 이에 조선의 양반가에서 적처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게다가 적처를 쫓아내고 새 부인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 적처를 내보내면 적처 집안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3. [02]에 제시된 ‘적처 집안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납득해야 하는가?

→

[03]

조선 전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드는 형태로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처의 집안 즉 여자 집안의 영향력이 컸고,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은 비교적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물론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혼인의 형태가 변화하여 남자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자 집안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지원은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자 집안과의 공조를 끊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 고려해서 이루어진 혼인이었으므로, 재혼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4. [03:01~03:02]의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화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03:01~03:02]

조선 전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드는 형태로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처의 집안 즉 여자 집안의 영향력이 컸고,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은 비교적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물론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혼인의 형태가 변화하여 남자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자 집안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지원은 무시할 수 없었다.

→

5. [03:03]의 내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3:03]

따라서 여자 집안과의 공조를 끊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

[04]

조선에서 남자 집안은 새로운 관계를 찾기보다는 처음 맺은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칠거지악이 여자들을 옥죄는 조선의 악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때문에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이혼이 거의 불가능하고도 불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의 부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6. [04:01]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04:01]

조선에서 남자 집안은 새로운 관계를 찾기보다는 처음 맺은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

7. 조선의 양반 집안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칠거지악에 근거해 출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O, X)

근거 및 해설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18.09 [27~32]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 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①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진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진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진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1. 이 지문의 핵심적인 화제를 잡고, 그 화제를 중심으로 역학과 논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보자.

→

2020 PSAT 언어이해 (나) 38번 변형

인간이 발전시켜온 생각이나 행동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지금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을 때에만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단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간이 토론을 통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며,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의 근거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억누르려는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흔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을 중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여론에 반(反)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은 옳은 것일 수도,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이 옳다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어볼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인간이 발전시켜온 생각이나 행동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지금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을 때에만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단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간이 토론을 통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며,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의 근거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1. 윗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토론의 정의(기능)는 무엇인가?

→

3. 1문단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어떻게 납득해야 할 지 생각해 보고 [01:06]의 이유를 추론해보자.

[01:06]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

4. [01:07]의 상황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01:07]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의 근거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

[02]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억누르려는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흔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을 중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여론에 반(反)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은 옳은 것일 수도,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이 옳다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어볼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5. [02:04]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재진술하는 문장은 무엇인지까지 찾아보자.

[02:04]

하지만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2019.06 [22~26] 사법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 1, 이 지문을 읽고 핵심 화제를 생각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2문단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또 2문단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재진술 문장에 주목하면서 읽어보자.

2021 PSAT 언어논리 (가) 4번 변형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소작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 자본주의 농업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다.

1.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2. [01]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

2-1. 해당 키워드에 대한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

→

3. [01:01~01:02]를 읽고 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는지 이해해보자.

[01:01~01:02]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

4. [01:03]의 ‘악조건’을 이해하고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생각해보자.

[01:03]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

5. [01:04, 01:05]의 정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1:04, 01:05]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

[02]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소작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 자본주의 농업 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4. ‘분익제’와 ‘정액제’의 비교지점과 대립코드는 무엇인가?

→

5. 농업 사회에서 분익제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03]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전환을 꺼렸다.

6. 필리핀 정부의 예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

7. 왜 필리핀의 농민들은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는가?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 06 [16~20] 과거제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심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Q, 3번 물음에서 요구했던 태도를 바탕으로 과거제의 핵심을 바탕으로 개방성, 유동성, 익명성에 대한 정보들을 납득해보자.

## 2021 PSAT 언어논리 (가) 5번 변형

‘공공 미술’이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대중(公衆)을 위해 제작되고 대중에 의해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한다. 공공 미술의 역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 미술이 그에 해당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대중이 미술 작품을 접하기 쉽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고 대중이 공공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을 대신하면서 공공장소에 완전히 동화된다. 세 번째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패러다임은 사회적인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거리 미술, 케릴라극, 페이지 아트 등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대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 시설물은 모두 대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하는 미술이다. 이 미술은 해당 주제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대중 일부에게 집중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술 작업은 대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에 해당한다.

-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공공 미술’이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대중(公衆)을 위해 제작되고 대중에 의해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한다. 공공 미술의 역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 미술이 그에 해당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대중이 미술 작품을 접하기 쉽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고 대중이 공공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을 대신하면서 공공장소에 완전히 동화된다. 세 번째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패러다임은 사회적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거리 미술, 케릴라극, 페이지 아트 등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 미술에 대한 세 관점을 설명해주는 서술 방식에 주목해보자.

[01:03~01:04]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 미술이 그에 해당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대중이 미술 작품을 접하기 쉽게 한 것이다.

→

[01:05~01:06]

두 번째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공공 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고 대중이 공공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을 대신하면서 공공장소에 완전히 동화된다.

→

## [01:07~01:08]

세 번째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패러다임은 사회적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거리 미술, 게릴라극, 페이지 아트 등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 [02]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 시설물은 모두 공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하는 미술이다. 이 미술은 해당 주제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공중 일부에게 집중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술 작업은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에 해당한다.

## FATAL SENTENCE\_PSAT편

3. 이 문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1번 문제에서 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자.

→

3-1. 이 문단에서 주로 다루지는 비교지점은 무엇인가?

→

4. [02:01~02:02]를 1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02:01~02:02]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 시설물은 모두 공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 부를 수 있다.

→

5. [02:03~02:05]을 1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02:03~02:05]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하는 미술이다. 이 미술은 해당 주제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공중 일부에게 집중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술 작업은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에 해당한다.

→

6.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와 화제를 떠올려보고, 1문단과 2문단이 그렇게 나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09 [20~25] 예술

(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걸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Q. (가)에서 PSAT의 세 번째 관점과 같이 다른 관점과 구분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

2021 PSAT 언어논리 (가) 9번 변형

조직 구성원의 발언은 조직과 구성원 양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성원들은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직무 스트레스가 줄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발언은 발언자의 조직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다양한 보복을 불러올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침묵은 조직의 발전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자신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관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우려되는 이슈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발언으로 표출할지 아니면 침묵으로 표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의 문화 아래에서 보복과 관련한 안전도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침묵은 묵종적 침묵, 방어적 침묵, 친사회적 침묵으로 나뉜다. 묵종적 침묵은 조직의 부정적 이슈 등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리거나 표출할 행동 유인이 없어 표출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침묵은 문제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상실한 체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방관과 유사하다. 묵종적 침묵은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방어적 침묵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향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나 의견을 억누르는 적극적인 성격의 행위를 가리킨다. 기존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방어적 침묵의 행동 유인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자기보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친사회적 침묵은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나 의견 등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 이타주의적인 침묵을 가리킨다. 이는 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판단 아래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1.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조직 구성원의 발언은 조직과 구성원 양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성원들은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직무 스트레스가 줄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발언은 발언자의 조직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다양한 보복을 불러올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침묵은 조직의 발전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자신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관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우려되는 이슈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발언으로 표출할지 아니면 침묵으로 표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의 문화 아래에서 보복과 관련한 안전도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01:06]을 읽고 발언과 침묵의 대립코드를 드러내는 비교 지점을 생각해보자.

[01:06]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우려되는 이슈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발언으로 표출할지 아니면 침묵으로 표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의 문화 아래에서 보복과 관련한 안전도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2-1. [01:06]을 읽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떨 때 발언을 하고, 어떨 때 침묵을 할지 납득해보자.

→

[02]

이러한 침묵은 묵종적 침묵, 방어적 침묵, 친사회적 침묵으로 나뉜다. 묵종적 침묵은 조직의 부정적 이슈 등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리거나 표출할 행동 유인이 없어 표출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침묵은 문제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상실한 체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방관과 유사하다. 묵종적 침묵은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2. [02:01]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2:01]

이러한 침묵은 묵종적 침묵, 방어적 침묵, 친사회적 침묵으로 나뉜다.

→

3. [02:04]의 내용을 중심으로 [01]에서 나온 비교지점과 연결해보자.

[02:04]

묵종적 침묵은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

[03]

방어적 침묵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향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나 의견을 억누르는 적극적인 성격의 행위를 가리킨다. 기존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방어적 침묵의 행동 유인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자기보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4. '방어적 침묵'의 정의를 바탕으로 [01]을 읽고 생각한 비교 지점과 연결해보자.

→

[04]

한편 친사회적 침묵은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나 의견 등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 이타주의적인 침묵을 가리킨다. 이는 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판단 아래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5. '친사회적 침묵'의 정의를 바탕으로 [01:06]을 읽고 생각한 비교지점과 연결해보고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생각해보자.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09 [26~30] 행정 규제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이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Q. 2번 질문에서 생각했던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밑줄 친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할 지 적어보자.

**Part. 2 Text Step.**

**- PSAT 변형 문제**

**2016 PSAT 언어논리 27번 변형**

‘핸드오버’란 이동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 신호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 기지국, 이동전화교환국 사이의 유무선 연결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동단말기가 기지국에 가까워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이동단말기와 기지국이 멀어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는 점점 약해진다. 이 신호의 세기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오버가 명령되어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동 통신 가입자에게 회선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기인 이동전화교환국과 기지국 간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핸드오버가 실패하게 된다.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와 기지국 간 통화 채널 형성순서에 따라 ‘형성 전 단절 방식’과 ‘단절 전 형성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FDMA와 TDMA에서는 형성 전 단절방식을, CDMA에서는 단절 전 형성 방식을 사용한다. 형성 전 단절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되기 전에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단절 전 형성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기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런 핸드오버 방식의 차이는 각 기지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만약 각 기지국이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동단말기는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미리 단절한 뒤 새로운 기지국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통화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지국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주파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통화 채널을 형성하고 나서 기존 통화 채널을 단절할 수 있다.

**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절 전 형성 방식의 각 기지국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 ②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간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 주파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기지국과 연결할 수 없게 된다.
- ③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면 핸드오버가 성공한다.
- ④ CDMA에서는 하나의 이동단말기가 두 기지국과 동시에 통화 채널을 형성할 수 있지만 FDMA에서는 그렇지 않다.
- ⑤ 이동단말기 A와 기지국 간 신호 세기가 이동단말기 B와 기지국 간 신호 세기보다 더 작다면 이동단말기 A에서는 핸드오버가 명령되지만 이동단말기 B에서는 핸드오버가 명령되지 않는다.

[01]

‘핸드오버’란 이동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 신호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 기지국, 이동전화교환국 사이의 유무선 연결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동단말기가 기지국에 가까워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이동단말기와 기지국이 멀어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는 점점 약해진다. 이 신호의 세기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오버가 명령되어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동 통신 가입자에게 회선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기인 이동전화교환국과 기지국 간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핸드오버가 실패하게 된다.

1. [01:01~01:02]를 읽고 이 지문의 화제를 잡아보자.

[01:01~01:02]

‘핸드오버’란 이동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 신호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 기지국, 이동전화교환국 사이의 유무선 연결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

2. [01:03]에서 제시된 비례/증감 관계를 납득해보자.

[01:03]

이동단말기가 기지국에 가까워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이동단말기와 기지국이 멀어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는 점점 약해진다.

→

3. [01:04]에서 '신호의 세기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무엇인지 핸드오버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자.

[01:04]

이 신호의 세기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오버가 명령되어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된다.

→

4. 다음 문단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보자.

→

[02]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와 기지국 간 통화 채널 형성순서에 따라 '형성 전 단절 방식'과 '단절 전 형성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FDMA와 TDMA에서는 형성 전 단절방식을, CDMA에서는 단절 전 형성 방식을 사용한다. 형성 전 단절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되기 전에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단절 전 형성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기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런 핸드오버 방식의 차이는 각 기지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만약 각 기지국이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동단말기는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미리 단절한 뒤 새로운 기지국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통화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지국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주파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통화 채널을 형성하고 나서 기존 통화 채널을 단절할 수 있다.

5. 앞에서 예측한 생각을 바탕으로 [02]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

6. [02:01~02:02]의 정보(FDMA, TDMA, CDMA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02:01~02:02]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와 기지국 간 통화 채널 형성순서에 따라 '형성 전 단절 방식'과 '단절 전 형성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FDMA와 TDMA에서는 형성 전 단절방식을, CDMA에서는 단절 전 형성 방식을 사용한다.

→

7. 6번 문제를 보면서 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02:03~02:04]의 역할과 그 내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02:03~02:04]

형성 전 단절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되기 전에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단절 전 형성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기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

8. [02:05]를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2:05]

이런 핸드오버 방식의 차이는 각 기지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

9. [02:06~02:07]의 내용을 앞부분을 읽으며 정리했던 내용을 끌고 오면서 이해해보자(앞에서 정리한 비교지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02:06~02:07]

만약 각 기지국이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동단말기는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미리 단절한 뒤 새로운 기지국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통화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지국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주파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통화 채널을 형성하고 나서 기존 통화 채널을 단절할 수 있다.

→

10. 다음 문단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생각해보자.

→

2018 PSAT 언어논리 2번 변형

재산의 사유가 인정되는 사유 재산 제도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기 때문에 토지 또한 민간의 소유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토지사유제의 정당성을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립 근거라는 점에서 찾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에 반발한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는 위의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들은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였거나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사례이다. 물론 토지사유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토지 공공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당위의 근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토지의 공공성 강조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 제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토지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갖는 토지사유제,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갖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토지가치공유제이다. 한편, 토지가치공유제는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분류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갖는 토지가치체제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지만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이다.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의 토지 제도는이 분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사유제는 자본주의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 ② 토지사유제와 마찬가지로 토지공유제가 적용될 때, 민간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 ③ 토지사유제와 토지가치체제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모두 민간이 갖는다.
- ④ 토지공유제에서는 토지의 처분권을 항상 민간이 갖는다.
- ⑤ 토지공유제와 사유 재산 제도는 양립할 수 있다.

[01]

재산의 사유가 인정되는 사유 재산 제도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기 때문에 토지 또한 민간의 소유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토지사유제의 정당성을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립 근거라는 점에서 찾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에 반발한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1. 이 글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토지사유제와 자본주의를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

3. 토지사유제를 중심으로 [01:03]에 드러나는 대립코드를 찾아보자.

[01:03]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에 반발한다.

→

3-1. '신성불가침의 영역'의 의미를 두 입장의 대립코드를 중심으로 납득해보자.

→

[02]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는 위의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들은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였거나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사례이다. 물론 토지사유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토지 공공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당위의 근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토지의 공공성 강조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 제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4.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에 대한 언급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

5. 토지공유제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6. [02:05]를 바탕으로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 제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

[03]

토지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갖는 토지사유제,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갖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토지가치공유제이다. 한편, 토지가치공유제는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분류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갖는 토지가치체제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지만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이다.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의 토지 제도는이 분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7. [03:01~03:02]를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1~03:02]

토지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8. 각 토지 공유제의 비교지점을 정리하면서 이해해보자.

[03:03~03:04]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갖는 토지사유제,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갖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토지가치공유제이다.

→

[03:06]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갖는 토지가치체제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지만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이다.

→

8-1. [03:05]를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5]

한편, 토지가치공유제는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분류된다.

→

[04]

이 중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될 수 없는 토지 제도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뿐이다. 물론 어느 토지 제도가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토지 사유제 옹호론에 따르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토지사유제만이 토지의 오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모두를 민간이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토지에 대해서 민간은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하다.

9. [04:01]을 납득해보자(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는 왜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할 수 없는가?).

[04:01]

이 중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될 수 없는 토지 제도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뿐이다.

→

10. [04:03~04:04]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4:03~04:04]

토지 사유제 옹호론에 따르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토지사유제만이 토지의 오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1. [04:06]의 핵심은 무엇인가?

[04:06]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토지에 대해서 민간은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하다.

→ .

**2018 PSAT 언어논리 8번 변형**

신체의 운동이 뇌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전히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이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신체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신체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뇌의 부위에는 운동 피질, 소뇌, 기저핵이 있다. 대뇌에 있는 운동 피질은 의지에 따른 운동을 주로 조절한다. 소뇌와 기저핵은 숙달되어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운동들을 조절한다. 평균대 위에서 재주를 넘는 체조선수의 섬세한 몸동작은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은 주로 소뇌가 관여하여 일어난다.

기저핵의 두 부위인 선조체와 흑색질은 서로 대립적으로 신체 운동을 조절한다. 이러한 선조체와 흑색질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인 헌팅턴 무도병과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운동을 유발한다. 반면 파킨슨병은 근육의 경직과 떨림으로 움직이려 하여도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파킨슨병은 신체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약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인 증세는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저핵의 두 부위에서 일어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조체와 흑색질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따라서 헌팅턴 무도병에는 선조체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해야 하고, 파킨슨병에는 흑색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신체의 근육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기가 힘들다면 ( A )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다면 ( B )을/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 C )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u>A</u>	<u>B</u>	<u>C</u>
①	선조체	헌팅턴 무도병	대뇌
②	선조체	파킨슨병	운동 피질
③	기저핵	파킨슨병	소뇌
④	흑색질	헌팅턴 무도병	소뇌
⑤	흑색질	헌팅턴 무도병	기저핵

[01]

신체의 운동이 뇌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여전히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이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신체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1.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화제를 바탕으로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

[02]

신체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뇌의 부위에는 운동 피질, 소뇌, 기저핵이 있다. 대뇌에 있는 운동 피질은 의지에 따른 운동을 주로 조절한다. 소뇌와 기저핵은 숙달되어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운동들을 조절한다. 평균대 위에서 재주를 넘는 체조선수의 섬세한 몸동작은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은 주로 소뇌가 관여하여 일어난다.

2. [02:01]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2:01]

신체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뇌의 부위에는 운동 피질, 소뇌, 기저핵이 있다.

→

3. [02:02~02:03]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02:02~02:03]

대뇌에 있는 운동 피질은 의지에 따른 운동을 주로 조절한다. 소뇌와 기저핵은 숙달되어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운동들을 조절한다.

→

4. [02:04]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인지 생각하고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02:04]

평균대 위에서 재주를 넘는 체조선수의 섬세한 몸동작은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은 주로 소뇌가 관여하여 일어난다.

→

[03]

기저핵의 두 부위인 선조체와 흑색질은 서로 대립적으로 신체 운동을 조절한다. 이러한 선조체와 흑색질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인 헌팅턴 무도병과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운동을 유발한다. 반면 파킨슨병은 근육의 경직과 떨림으로 움직이려 하여도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파킨슨병은 신체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약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5. [03:01~03:02]를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1~03:02]

기저핵의 두 부위인 선조체와 흑색질은 서로 대립적으로 신체 운동을 조절한다. 이러한 선조체와 흑색질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6. [03:03~03:06]에서는 헌팅턴 무도병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 내용을 선조체와 흑색질과 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떤 태도를 바탕으로 이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인 헌팅턴 무도병과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운동을 유발한다. 반면 파킨슨병은 근육의 경직과 떨림으로 움직이려 하여도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헌팅턴 무도병은 신체의 근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파킨슨병은 신체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약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

[04]

이러한 대조적인 증세는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저핵의 두 부위에서 일어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조체와 흑색질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따라서 헌팅턴 무도병에는 흑색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해야 하고, 파킨슨병에는 흑색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7. [04:01]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4:01]

이러한 대조적인 증세는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기저핵의 두 부위에서 일어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

8. [04:03]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기저핵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자.

[04:03]

따라서 헌팅턴 무도병에는 선조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을 사용해야 하고, 파킨슨병에는 흑색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

2018 PSAT 언어논리 나 23번 변형

‘인간’이란 말의 의미는 ‘호모 속(屬)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種)이 존재했다. 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 언어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과 사회성을 갖춘 사피엔스는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다른 종의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하였다.

유연성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드는 등 언어의 유연성을 갖췄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화 이론은 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사회적 협력을 다른 언어보다 더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피엔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도 할 수 있었다. 그런 담화는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고 협력을 증진시켰다. 작은 무리의 사피엔스는 이런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위의 두 이론은 사피엔스의 정복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 원인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데 있다.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재는 사피엔스뿐이었다. 그들이 지닌 언어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사피엔스는 개인적인 상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사회는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복잡한 거대 사회로 발전될 수 있었다.

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피엔스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 ② 유연성 이론과 담화 이론에 따르면 공유한 정보의 양이 사피엔스 성공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 ③ 담화 이론과 달리 유연성 이론은 사피엔스가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 ④ 담화 이론에 따르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신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보다 사피엔스에게 더 중요하였다.
- ⑤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을 멸종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공통의 허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01]

‘인간’이란 말의 의미는 ‘호모 속(屬)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種)이 존재했다. 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 언어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과 사회성을 갖춘 사피엔스는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다른 종의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하였다.

1.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

3. [01:02~01:03]을 읽고 불을 사용했다는 사피엔스의 특징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1:02~01:03]

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 언어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과 사회성을 갖춘 사피엔스는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다른 종의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하였다.

→

[02]

유연성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드는 등 언어의 유연성을 갖췄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화 이론은 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사회적 협력을 다른 언어보다 더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피엔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담화도 할 수 있었다. 그런 담화는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고 협력을 증진시켰다. 작은 무리의 사피엔스는 이런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3. [02]에서 주목해야할 키워드 두 가지는 무엇인가?

→

4. 두 키워드 간의 비교지점을 잡아보자.

→

[03]

위의 두 이론은 사피엔스의 정복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 원인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데 있다.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재는 사피엔스뿐이었다. 그들이 지닌 언어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사피엔스는 개인적인 상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사회는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복잡한 거대 사회로 발전될 수 있었다.

5. [03]에서 등장한 사피엔스의 새로운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02]에 제시된 두 이론과의 차이점을 잡아보자.

→

6. [03]의 각 문장들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6-1. [03:01~03:02]를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1~03:02]

위의 두 이론은 사피엔스의 정복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 원인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데 있다.

→

6-2. [03:03~03:04]를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3~03:04]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재는 사피엔스뿐이었다. 그들이 지닌 언어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사피엔스는 개인적인 상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었다.

→

6-3. [03:05]를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5]

그 덕분에 그들의 사회는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복잡한 거대 사회로 발전될 수 있었다.

→

7. [02]의 유연성 이론과 담화 이론은 [03]에서 제시된 사피엔스의 특징과 대립된다.

(O, X)

근거 및 해설

→

2019 PSAT 언어논리영역 ㉞ 10번

생체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이 있다. 이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표적세포는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포가 있는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먼저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효소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인접한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A 효소는 표적세포 안에서 cGMP를 생성하고, cGMP는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결국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가 변함에 따라 표적세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혈관의 팽창은 산화질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공간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내피세포층이 감싸고 있다. 이 내피세포층의 바깥쪽은 혈관 평활근세포로 된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감싸고 있다. 혈관이 팽창되기 위해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자극을 받는다. 이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cGMP를 생성한다. cGMP의 작용으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 평활근세포가 이완되고 결국에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내피세포-이완인자라고도 한다.

10.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GMP는 혈관 평활근육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 ②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다.
- ③ 혈관 평활근세포에서 A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관 팽창이 일어난다.
- ④ A 효소는 표적세포에서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
- ⑤ 혈관 평활근세포는 내피세포-이완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01]

생체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의 신호 물질이 있다. 이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표적세포는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포가 있는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1. 1문단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2. [01:01~01:02]를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01:01~01:02]

생체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의 신호 물질이 있다. 이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표적세포는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3. 표적세포에 주목해야한다. 그 이유는? - 어휘에 주목하자

→

3-1 수용체를 가진다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02]

대표적인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먼저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효소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인접한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A 효소는 표적세포 안에서 cGMP를 생성하고, cGMP는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하게 한다. 결국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가 변함에 따라 표적세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4. 2문단의 '문단 화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

5. 2문단에서 서술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각 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서술하는지 생각해보자)

→

6. 둘 중 더 무게를 두고 읽어야 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03]

혈관의 팽창은 산화질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공간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내피세포층이 감싸고 있다. 이 내피세포층의 바깥쪽은 혈관 평활근세포로 된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감싸고 있다. 혈관이 팽창되기 위해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자극을 받는다. <이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cGMP를 생성한다. cGMP의 작용으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 평활근세포가 이완되고 결국에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내피세포-이완인자라고도 한다.>

7. 3문단의 문단 화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

8. [03:0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사고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고과정이 생략되었는가? (cGMP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보자)

[03:05]

이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cGMP를 생성한다.

→

9. 해당 문단을 2문단에서 등장한 과정과 연결하면서 읽어보자.

→

2019 PSAT 언어논리영역 ㉠ [19~20] 변형

곤충이 유충에서 성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외골격은 더 큰 것으로 주기적으로 대체된다. 곤충이 유충, 번데기, 성체로 변화하는 동안, 이러한 외골격의 주기적 대체인 탈피는 몸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신체 형태 변화에 필수적이다.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들의 경우, 그것들의 최종 탈피는 성체의 특성이 발현되고 유충의 특성이 완전히 상실될 때 일어난다.

이런 유충에서 성체로의 변태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탈피호르몬과 유충호르몬이 있다. 탈피호르몬은 초기 유충기에 형성된 유충의 전흉선에서 분비된다. 탈피 시기가 되면, 먹이 섭취 활동과 관련된 자극이 유충의 뇌에 전달된다. 이 자극은 이미 뇌의 신경분비세포에서 합성되어 있던 전흉선 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 호르몬이 순환계로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든다. 분비된 전흉선 자극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전흉선으로 이동하여, 전흉선에서 허물 벗기를 촉진하는 탈피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 그리고 탈피호르몬이 분비되면 탈피의 첫 단계인 허물 벗기가 시작된다.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들의 경우, 성체로의 마지막 탈피가 끝난 다음에 탈피호르몬은 없어진다.

유충 속에 있는 알라타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유충호르몬은 탈피 촉진과 무관하며, 각각의 탈피 과정에서 분비되는 유충호르몬의 양에 의해서 탈피 이후 성체로의 변태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유충호르몬은 유충의 특성이 남아 있게 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유충호르몬의 방출량은 유충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알로스테틴과 분비를 촉진하는 알로트로핀에 의해 조절된다. 이 알로스테틴과 알로트로핀은 곤충의 뇌에서 분비된다. 한편, 유충호르몬의 방출량이 정해져 있을 때 그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유충호르몬에스테라제와 같은 유충호르몬 분해 효소와 유충호르몬결합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유충호르몬결합단백질은 유충호르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충호르몬이 분해되어 혈중 유충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며, 유충호르몬을 유충호르몬 작용 조직으로 안전하게 수송한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이 변태 과정 중에 있을 때, 유충기부터 알로트로핀을 주입하면 그것은 성체로 탈피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의 전흉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곤충이 성체로 최종 탈피 하기 전까지 분비될 것이다.
- ③ 초기 유충기에 전흉선을 형성하지 않은 곤충에게서는 외골격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④ 성체로의 최종 탈피를 하는 곤충이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알로스테틴이 알로트로핀에 비해 많이 분비되어야 한다.
- ⑤ 유충호르몬에스테라제의 작용이 강하다면 유충호르몬의 방출량이 줄어들 것이다.

20. 윗글을 토대로 할 때, 다음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실험 결과> —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의 유충기부터 성체로 이어지는 발생 단계별 유충호르몬과 탈피호르몬의 혈중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결과 1:** 유충호르몬 혈중 농도는 유충기에 가장 높으며 이후 성체가 될 때까지 점점 감소한다.

**결과 2:** 유충에서 성체로의 최종 탈피가 일어날 때까지 탈피호르몬은 존재하였고, 그 구간 탈피호르몬 혈중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 ① 결과 1에 따르면, 실험 곤충의 혈중 유충호르몬에스테라제의 작용이 유충기에 가장 약하고 성체가 되면서 점점 강해질 것이다.
- ② 결과 1에 따르면, 실험 곤충이 성체에 가까워질수록 알라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감소할 것이다.
- ③ 결과 2에 따르면, 최종 탈피가 일어날 때까지 탈피호르몬이 일정한 농도로 존재한 이유는 알로스테틴의 작용으로 인해 유충호르몬이 억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④ 결과 2에 따르면, 실험 곤충은 성체가 되기 전에도 탈피호르몬의 촉진으로 인해 탈피를 거쳤을 것이다.
- ⑤ 결과 1과 결과 2에 따르면, 변태 과정에 있는 곤충의 혈중 탈피호르몬 농도 대비 유충호르몬의 농도 비율이 작아질수록 그 곤충은 성체의 특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01]

곤충이 유충에서 성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외골격은 더 큰 것으로 주기적으로 대체된다. 곤충이 유충, 번데기, 성체로 변화하는 동안, 이러한 외골격의 주기적 대체인 탈피는 몸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신체 형태 변화에 필수적이다.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들의 경우, 그것들의 최종 탈피는 성체의 특성이 발현되고 유충의 특성이 완전히 상실될 때 일어난다.

1. 1문단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02]

이런 유충에서 성체로의 변태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탈피호르몬과 유충호르몬이 있다. 탈피호르몬은 초기 유충기에 형성된 유충의 전흉선에서 분비된다. 탈피 시기가 되면, 먹이 섭취 활동과 관련된 자극이 유충의 뇌에 전달된다. 이 자극은 이미 뇌의 신경분비세포에서 합성되어 있던 전흉선 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 호르몬이 순환계로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든다. 분비된 전흉선 자극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전흉선으로 이동하여, 전흉선에서 허물 벗기를 촉진하는 탈피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 그리고 탈피호르몬이 분비되면 탈피의 첫 단계인 허물 벗기가 시작된다.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지 않는 곤충들의 경우, 성체로의 마지막 탈피가 끝난 다음에 탈피호르몬은 없어진다.

2. 2문단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3. 2문단의 '문단 화제'는 무엇인가?

→

4.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예측해보자.

→

5. 탈피 시기에, 먹이 섭취 활동에 관한 자극이 없다면 전흉선 자극호르몬은 분비되지 않는다.

(O, X)

근거 및 해설

→

6. 성체가 된 이후 탈피하지 않는 곤충의 경우 유충의 성질이 사라졌다면 성체로의 탈피가 완전히 끝나면 탈피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O, X)

근거 및 해설

→

[03]

유충 속에 있는 알라타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유충호르몬은 탈피 촉진과 무관하며, 각각의 탈피 과정에서 분비되는 유충호르몬의 양에 의해서 탈피 이후 성체로의 변태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유충호르몬은 유충의 특성이 남아 있게 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유충호르몬의 방출량은 유충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알로스테틴과 분비를 촉진하는 알로트로핀에 의해 조절된다. 이 알로스테틴과 알로트로핀은 곤충의 뇌에서 분비된다. 한편, 유충호르몬의 방출량이 정해져 있을 때 그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유충호르몬에스테라제와 같은 유충호르몬 분해 효소와 유충호르몬 결합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유충호르몬결합단백질은 유충호르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충호르몬이 분해되어 혈중 유충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며, 유충호르몬을 유충호르몬 작용 조직으로 안전하게 수송한다.

## FATAL SENTENCE\_PSAT편

7. 3문단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8. 유충호르몬결합단백질은 유충호르몬에스테라제의 기능을 방해한다.

(O, X)

근거 및 해설

→

9. 지문에서 다루는 곤충의 최종 탈피는 유충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21 PSAT 언어논리 (가) 28번 변형

모든 구조물은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정적 하중은 구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함께 구조물에 늘 작용하는 모든 추가적인 힘을 말한다. 동적 하중은 교통, 바람, 지진 등 구조물에 일시적으로 작용하거나 순간순간 변하는 다양한 힘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댐은 평상시 가두어진 물의 압력에 의한 힘을 주로 지탱하지만, 홍수가 나면 급류에 의한 힘을 추가로 지탱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가해진 하중은 진동의 원인이다. 스프링을 예로 들어보자. 추가 매달린 스프링을 살짝 당기면 진동하는데, 이때 스프링 내부에서 변형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저항력인 응력이 작용한다. 만약 스프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당기면 스프링은 다시 진동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가한 동적 하중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크게 작용하면 구조물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응력의 한계를 벗어나 약해진 상태로 변형된다. 이때 구조물이 변형에 저항하는 한계를 '응력한계'라 한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구조물의 공명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공명 현상은 진동주기가 같은 진동끼리 에너지를 주고받는 현상이다. 하나의 구조물은 여러 개의 진동주기를 지니는데, 이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구조, 구성 재료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공명 현상 발생 여부에 따라 구조물이 진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생겨나고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착하면 땅의 흔들림을 유발해 구조물에 동적 하중을 가하여 건물에 진동을 일으킨다. 이때 이 진동 자체만으로는 구조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진동주기와 지진파의 진동주기가 일치하면 공명현상이 발생하여 지진파의 진동에너지가 구조물에 주입되어 구조물에 더 큰 진동을 유발하고 결국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진 이외에 강한 바람도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건물 내진 설계나 내풍 설계 같은 것은 바로 이런 공명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28.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적 하중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 ② 정적 하중의 크기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동적 하중의 크기는 항상 구조물의 응력한계를 초과한다.
- ③ 약한 지진파가 발생해도 구조물과 그 진동주기가 서로 일치하면 응력한계를 초과하는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
- ④ 구조물의 진동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지진파가 발생한다면, 공명 현상으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 ⑤ 내진 설계와 내풍 설계는 구조물의 응력한계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짓는 것이다.

[01]

모든 구조물은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정적 하중은 구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함께 구조물에 늘 작용하는 모든 추가적인 힘을 말한다. 동적 하중은 교통, 바람, 지진 등 구조물에 일시적으로 작용하거나 순간순간 변하는 다양한 힘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댐은 평상시 가두어진 물의 압력에 의한 힘을 주로 지탱하지만, 홍수가 나면 급류에 의한 힘을 추가로 지탱해야 한다.

1. [01:01]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1:01]

모든 구조물은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

2. [01:02~01:03]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1:02~01:03]

정적 하중은 구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함께 구조물에 늘 작용하는 모든 추가적인 힘을 말한다. 동적 하중은 교통, 바람, 지진 등 구조물에 일시적으로 작용하거나 순간순간 변하는 다양한 힘을 일컫는다.

→

3. [01:04]의 내용을 앞에서 정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01:04]

<예를 들어 댐은 평상시 가두어진 물의 압력에 의한 힘을 주로 지탱하지만, 홍수가 나면 급류에 의한 힘을 추가로 지탱해야 한다.>

→

[02]

일시적으로 가해진 하중은 진동의 원인이다. 스프링을 예로 들어보자. <추가 매달린 스프링을 살짝 당기면 진동하는데, 이때 스프링 내부에서 변형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저항력인 응력이 작용한다. 만약 스프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당기면 스프링은 다시 진동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가한 동적 하중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크게 작용하면 구조물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응력의 한계를 벗어나 약해진 상태로 변형된다. 이때 구조물이 변형에 저항하는 한계를 '응력한계'라 한다.

4. [02:01]을 중심으로 [02]의 문단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02:01]

일시적으로 가해진 하중은 진동의 원인이다.

→

5. [02:02~02:03]을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2:02~02:03]

스프링을 예로 들어보자. 추가 매달린 스프링을 살짝 당기면 진동하는데, 이때 스프링 내부에서 변형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저항력인 응력이 작용한다.

→

6. [02:04~02:06]을 읽고 응력한계를 하중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

[02:04~02:06]

만약 스프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당기면 스프링은 다시 진동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가한 **동적 하중**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크게 작용하면 구조물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응력의 한계를 벗어나 약해진** 상태로 변형된다. 이때 구조물이 변형에 저항하는 한계를 **'응력한계'**라 한다.

→

[03]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구조물의 공명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공명 현상은 진동주기가 같은 진동끼리 에너지를 주고받는 현상이다. 하나의 구조물은 여러 개의 진동주기를 지니는데, 이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구조, 구성 재료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공명 현상 발생 여부에 따라 구조물이 진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7. [03:01]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03:01]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

7-1. [03:02]를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03:02]

구조물의 **공명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

8. [03:03~03:05]에서는 공명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응력한계와 연결해서 공명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 납득해보자.

[03:03~03:05]

공명 현상은 진동주기가 같은 진동끼리 에너지를 주고 받는 현상이다. 하나의 구조물은 여러 개의 진동주기를 지니는데, 이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구조, 구성 재료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공명 현상 발생 여부에 따라 구조물이 진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

[04]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생겨나고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착하면 땅의 흔들림을 유발해 구조물에 동적 하중을 가하여 건물에 진동을 일으킨다. 이때 이 진동 자체만으로는 구조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진동주기와 지진파의 진동주기가 일치하면 공명현상이 발생하여 지진파의 진동에너지가 구조물에 주입되어 구조물에 더 큰 진동을 유발하고 결국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진 이외에 강한 바람도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건물 내진 설계나 내풍 설계 같은 것은 바로 이런 공명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9. [04:01]을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4:01]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생겨나고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착하면 땅의 흔들림을 유발해 구조물에 동적 하중을 가하여 건물에 진동을 일으킨다.

→

10. [04:02~04:03]을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4:02~04:03]

이때 이 진동 자체만으로는 구조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진동주기와 지진파의 진동주기가 일치하면 공명현상이 발생하여 지진파의 진동 에너지가 구조물에 주입되어 구조물에 더 큰 진동을 유발하고 결국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

11. [04:04~04:05]를 읽고 해야할 생각은 무엇인가?

[04:04~04:05]

지진 이외에 강한 바람도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건물 내진 설계나 내풍 설계 같은 것은 바로 이런 공명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

12. 응력한계와 공명 현상을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